

제10차 람사르 총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축하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람사르 총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선 발되신 여러분께 축하도 드리고, 아울러 감사 인사도 드립니다. 특히 김태호 지사님, 각별히 저를 소개해 주시고 덕담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위의 장식들이 참 보기가 좋지요? 저도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갈대하고 새하고 억새하고 꽃도 있고요. 자연으로 장식되어 있으니 아주 친근하고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신 것은 우리 생태계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좀 복원하자, 그리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세계적인 운동에 우리도 연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지키고 복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 위협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삶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여러분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생태계 복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은 사람이 사는 사람 생태계도 복원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복원이 아니고 그 위에 지금과는 다르게 서로 돕고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소위 공동체 생태계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많이 해체돼 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가 저는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자원봉사자로 오신 것이 단순히 경남에서 근사한 행사 한번 치르자 하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적 행사를 멋있고 모범적으로 치러서 국위를 선양하자고 하는 수준보다도 높을 것입니다. 우리 생태계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복원하자, 이런 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자연 생태계만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생태계를 복원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원봉사 참여는 정말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깜짝 놀랐던 것은 노소불문하고, 세대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지역적으로도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고, 3 대 1 경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2008년 람사르 총회가 반드시 성공할 것 같다는 예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계도 복원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 생태계도 머지않아 복원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해 오신 환경부,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자 여러분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꼭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내년 2월 말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제 고향에도 화포천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습지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기가 되면 홍수처럼 물이 많이 불었다가 빠지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상당히 풍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에 가면 창포인지 붓꽃인지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고 또 노란 꽃도 핍니다.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겨울에 날아오는 철새들입니다. 하늘이 새까맣게 날아 오곤 했습니다. 벼를 낚아서 말리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낱알을 먹으러 그 철새들이 습지 안에 있는 농장에도 가득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한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철새를 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우포늪이 아니라도 우리 동네도 새 좀 날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가니까 나무가 울창하게 어우러져서 멀리서 보면 '아, 우리 산도 울창하게 어우러지고 좋구나. 이제 우리 산도 풍부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까이 가 보면 옛날에 살던 벌레나 키 작은 풀, 아주 다양했던 많은 떨기식물들이 큰 나무에 가려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숲은 울창해졌는데, 생태계는 오히려 종이 빈곤해진 듯하여 참 안타깝습니다.

큰 메뚜기처럼 생긴 불매, 색깔이 누런 송장메뚜기, 가지가지 이름도 모를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향에 가서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방개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고, 방개 손자쫂미 가는 조그만 망근쟁이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없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 많은 동식물들은 다 가 버리고 없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이 환경에 관심 없다고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항상 수요자에게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영상물에서 보셨듯이 습지보호지역을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철새 보호를 위해서 아·태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국가생물주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장항산업단지 문제도 꺾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잘 해결됐습니다. 국가습지심의위원회도 올해 말까지 설치해서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주민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백두대간 보호법도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앞으로 램사르 총회는 우리 국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습지보전 노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성대한 행사를 통해 '환경 경남'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은 우포늪과 주남저수지·낙동강 하구·봉암갯벌 등 160여 개의 습지를 비롯해서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빼어난 관광자원이고,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연을 기반으로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하고,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갖춘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경남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서 균형발전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라는 것이 산업도 분산하고, 사람도 분산해 올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질 높은 생태환경과 생활공간을 잘 만들면 그것 또한 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가습지센터 건립과 동아시아 램사르센터 유치를 통해서 경남을 습지 연구와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램사르 총회에 참가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